

마음 나누니 겨울이 더 따뜻합니다

광주불교사암련·금선사·원효사, 연탄·떡국·성금 등 보시 실천

강추위와 폭설이 전국을 뒤덮은 때, 호남 지역 불교계가 다양한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자비의 온정 전달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구랍 29일 '희망과 자비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열고, 광주지역 소외계층 50여 가구에 연탄 1만장과 난방비 등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원스님 10명과 자비신행회를 포함한 40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희망과 자비의 연탄'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해 본지와 공동주최했던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좌의 수익금과 각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지원한 후원금을 모아 마련했다.

연탄 200장과 40kg들이 쌀이 전달된 김옥덕(74. 남구 방림1동) 할머니 집은 조손가정으로 며느리가 가출해 10여 년 전부터 중학2년과 초등6학년의 손자·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 할머니 가정은 아들이 있지만 경제능력이 없어 할머니 혼자 가정을 이끌며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성오 스님은 전달에 앞선 인사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보살정신이며, 오늘날의 보살정신은 봉사"라며 "봉사를 할 곳이 없어 지는 것이 봉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이에 앞선 28일



광주시 송정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40여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을 전달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시장 도로 주변에 쪼그리고 앉아, 집에서 제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을 크나 큰 선물.

점심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추운 겨울에 언 몸을 녹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라고 감사해 했다.

일명 스님은 떡국 전달에 앞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공양 받는 어르신들은 우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사부대중이 희망과 자비의 연탄을 나르는 모습(왼쪽). 일명 스님이 어르신에게 떡국공양을 올리고 있다.

리의 어버이 같은 존재이다. 부모에게 음식을 공양하듯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노점상 어르신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두 손을 모아 음식을 드려 눈길을 끌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양현숙(금선사 신도) 씨는 "잠깐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추운데, 난로불도 없이 하루종일 앉아 농산물을 판매하는 할머니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전해드린 따뜻한 밥에 추운 겨울을 이기는 맛있는 식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는 구랍 25일 광주 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행복재활원(원장 정숙현) 지체장애아동들에게 먹거리와 성금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현지 스님, 김진여성 광주생명나눔실천 후원회장을 비롯해 자리아타봉사단원 10여 명이 참석해 과자와 과일 등 지원물품을 비롯해 봉사단원이 매월 1만원씩 모은 기부금 중 100여 만원도 선사했다.

전달식에서 현지 스님은 "추운 겨울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나눔을 행하면, 세상은 한층 더 맑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달식 후 참여한 봉사단원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중증 지체장애아동들에게 점심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키는 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진여성 후원회장은 "육직이지 못하는 아이 이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말을 잊지 못했다. 나누고 봉사하려는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싶다"라고 참가 소감을 이야기 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행복재활원은 지체장애아동들이 기거하는 시설로 3세부터 18세까지의 160여명의 원생들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해 원력과 신심 다져요”

전북공무원불자회·전북포교사단·고창복지관

전북지역 불교계 단체들이 2009년을 여법하게 회향하고, 2010년의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송년 법회를 잇따라 마련했다.

전북지역공무원불자회는 구랍 25일 김제 금산사 설법전에서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전북도청 연우회, 김제시 청연우회, 경찰청 불자회, 교사불자회, 법조인 불자회, 전주교도소 성불회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200여 공무원불자들이 참석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법에서 "새해에는 전북지역에도 불교방송이 개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불자들이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종교 간 화합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친 도청 연우회 김희수 불자 등 7명이 금산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우수 공무원 불자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는 같은 날, 전주 관광호텔연회장에서 '전북포교사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강홍원 포교사단장, 임희웅 차기 포교사단장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포교사들에게 "폭넓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이정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포교사의 역할과 그에 맞는 위상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포교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포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포교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해수 포교사 등 우수 포교사에 대한 시상 이어졌다.

한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관

장 무공)은 구랍 2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500여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가운데 '2009 제2회 복은 문화행사 작품발표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작품발표회는 지난 1년 동안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참여한 프로그램 발표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알리는 자리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난타공연, 댄스스포츠, 요가시범, 은빛구름복은 합창단의 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어 한글교실을 다니며 느꼈던 수기낭독에 이어 실버악단의 아코디언 공연은 어르신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였다.

무공 스님은 "어르신들이 배움을 향한 끝없는 무한열정으로 복지관 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육을 준비해 복지관을 찾는 주민의 잠재된 소질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동참한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겨울 장갑이 선물로 증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빈정사 세대 초월 법회 열기 뜨거워

명상하며 참회하는 마무리 법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승가란 법어 'samgha'의 음역으로 간략하게는 승(僧)이라 하고, 화(和·衆)이라 번역한다. 즉, 화합의 뜻을 갖는다. 오늘날 승가의 구성원을 사부대중(四部大衆)이라 표현한다. 바로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가 그것이다. 작은 불교단체이든 큰 조직이든 승가의 원칙인 화합은 단체운영의 근간이다. 여기에 단체별 개인별 소통을 더한다면 더할 나위없는 승가가 될 것이다.

빛고를 광주의 무등산 아래 첫 절인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사부대중 만남의 장을 만들고 법회를 여는 곳이다. 사부대중이 만드는 가족법회에 참가하려 들린 구랍 29일에는 어린

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초월한 200여 불자가 모여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송년법회를 봉행 중이었다. 이날 법회에는 광주 동구청 불자회와 조선대 불교학성회 회원들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단순했다. 지난 한 해를 참회하는 시간. 그 흔한 장기자랑에 노래가 나올 만도 한데 문빈정사의 송년법회는 조용히 앉아 명상에 들고, 참회의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었다.

주지 법선 스님은 신년의 좌우명을 <채근담>에 나온 "남을 대할 때는 불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한테는 추상같은 엄격함을 가져

야 한다(對人春風 持己秋霜)"는 말로 대신했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모습은 지난 한해의 아쉬움보다 새로운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온다.

광주에서 청년회를 운영하는 곳은 단 3곳 뿐이다. 어린이회와 거사회도 열리는 곳이 적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여건에서도 문빈정사에는 어린이 답사회, 청년회, 거사회를 비롯해 여성 신도회가 조직돼 있다. 신도회 조직에는 바라밀 봉사단이 있어 매주 화요일 봉사활동을 나간다.

매월 한차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여 한 달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법회를 하는 것이 바로 가족법회라고 한다. 가족법회에서는 각 단체가 서로 교류하고 사찰의 중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 된다.

작은 절인 문빈정사가 단체법회를 몇몇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선 스님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보다는 "가족법회가 기존 신도법회와 더불어 사찰의 근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2010년에는 1월부터 어린이 생명평화학교가 이곳 문빈정사에서 개최된다. '자연과 함께 놀며 생명과 평화를 배우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문빈정

사에는 어린이부터 신도회까지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사찰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여기에는 회주 지선 스님의 원력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체는 와해됐고, 사람들은 지쳐갔다. 아마 광주와 전국의 대다수 포교사찰은 같은 경험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법선 스님은 "2010년은 문빈정사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다시 사람을 모으고, 좀 더 자연스럽게 불법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했다.

문빈정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문빈정사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을 주는 포교사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2010년에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부족함이 있지만 사부대중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희망을 갖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교